www.daewooenc.com

DAEWOO E&C

대우건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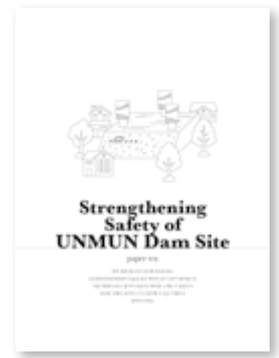
대우건설인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디자인사업부
02 763 2303
사진 김재이, 김지원, 황규백
표지 일러스트 잔잔(김아연)
인쇄 금강인쇄

대우건설인 05+06월호 이벤트 당선작

당선작 발표

1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현장 임현재 대리
2 서부지역설비2팀 조문식 과장
3 기계설계팀 이윤종 과장
4 커뮤니케이션팀 김현주 과장
5 품질기술팀 전형준 과장
6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현장 박규남 과장
7 중부지역설비2팀 이종목 대리
8 플랜트사업지원1팀 정의환 과장



페이퍼 토이 이벤트

마지막 장에 동봉된 페이퍼 토이 도안을 꾸며
나만의 건물 모형을 만들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
2021.7.16 — 8.24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완성한 페이퍼 토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게시물에는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 주셔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완성한 페이퍼 토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페이퍼 토이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11+12월호에서 다시 한번, 연말 포토제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각호마다 동봉되는 페이퍼 토이 6개를 모아
두면 당첨 기회가 더욱 높아지겠죠?
올 연말, 대우건설 시공물들로 만든 멋진 마을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Daewoo E&C Magazine 2021 07+08

report
기업의 ESG경영 06
share
자연과 함께 놀던, 그 빛나던 순간 10
check
초록빛 '숨' 꿈꾸는 지구를 위하여 14
explore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다 16
jump
토목개발팀이 만들어 나가는
빛과 바람의 새로운 미래 20

technology
해양플랜트 취수배관 세정장치
Winch-Jig Cleaning Machine 22
summer
'언택트' 휴가를 즐기는 법 24
our scene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
도전과 노력으로 댐 안전의 머릿돌을 놓다 26
knock knock
2021 대우건설 신입사원 34

how to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뷰티케어 40
special day
착한 비누 만들기
토건설계팀 김정식 차장 가족 42
from the city
거대한 성장잠재력 품은 친환경도시,
베트남 48

cartoon
일상공감툰 52
대우건설 뉴스
2021년 07+08 대우건설 뉴스 54
독자의견
05+06 독자의견 56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

report

더 큰 성장을 향해 미래의 날개를 달다

기업의 ESG 경영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함에 있어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들 역시 ESG를 중요한 투자 판단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ESG 투자 규모는 이미 100조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수준의 척도로 떠오른 ESG 정보 공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속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ESG 경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위험요소(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E	S	G
기후변화 · 탄소배출	고객 만족	이사회 구성
대기 및 수질 오염	데이터보호 및	감사위원회 구조
생물의 다양성	프라이버시	뇌물 및 부패
에너지 효율	성별 및 다양성	임원 보상
자원 및 폐기물	직원참여	로비 및 정치기부금
관리	지역사회 관계	내부 고발자 제도
물 부족	인권	
	노동기준	

기업의 성장과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ESG 활동

최근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ESG 활동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증대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ESG 정보 공시, 탄소저감 등의 친환경 규제 등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 행정부도 2035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공급망 전 과정에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여신심사와 연기금의 ESG 투자 전략 확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ESG 활동 여부를 이미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기업의 ESG 경영 활동과 투자의 연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기업에 도덕성,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적 이윤 추구만으로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기업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가치 투자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경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이는 또 ESG 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 Top 20 도약을 위한 회사의 ESG 평가 대응

회사는 2012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관련 주요 정책과 활동, 성과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7월 열 번째로 발간 예정인 2021년 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Option) 부합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실질적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 현장 및 건물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경제, 환경,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회사 및 사업 소개, 지속가능경영체계 및 지속가능경영활동 성과로 구성되며, 활동 및 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인증을 진행하였다.

회사는 국내외 ESG 평가 대응기관 중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국민연금의 ESG 관련 자문을 하고 있는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각 평가기관들은 내부 조사를 거친 1차 결과를 발표하고, 각 기업들의 소명 및 정정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각 기업의 ESG 점수 및 등급이 확정되게 되며, 등급은 평가 대상 기업들 간 상대평가로 진행되나, 사회적 이슈(안전사고, 분쟁 발생, 법규위반 등) 발생시 추가 등급 조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평가 결과는 기관투자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데 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활용되며, 기업에게는 비재무적 실적에 대한 이미지 제고방안으로서,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도 회사의 ESG 평가 등급은 상장기업 기준 약 30% 수준이나, 동종사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아울러 동종사들은 국제적 평가 기준에 맞춰 내부 시스템 정비 및 절차 수립 후 해외 ESG 평가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바, 글로벌 Top 20 도약을 위해 회사 ESG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회사는 지난 6월, 컴플라이언스팀을 ESG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ESG 경영 활동과 함께 ESG 리스크 관리 및 감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기업은 ESG 활동을, 투자자는 ESG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필(必)환경

Must be green

share — 10
자연과 함께 놀던, 그 빛나던 순간
check — 14
초록빛 '숨' 꿈꾸는 지구를 위하여
explore — 16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다
jump — 20
토목개발팀이 만들어 나가는
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미래

[지구]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쓰레기가 생기고
그 쓰레기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죠.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간과 자연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필(必)환경 시대.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자연을 떠올려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해봅니다.

품질경영팀
임은석 차장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 주었던 여름날

어린 시절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쉴 때는 시원한 바람이 생각날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곤 했어요.
그럼 부채도 필요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와 더할 나위없이 시원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심각해진 미세먼지 탓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맘대로 열지 못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각종 전자 제품 사용은 오히려 전기와 냉매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을
더욱 나빠지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데 말이죠. 어릴 적 그 맑았던 공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불편함은 조금 감수하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부채질을 시작해 보아야겠습니다.

플랜트사업지원1팀
서민석 과장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어릴 적 시골 대청마루에 누워 올려다본 밤하늘은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은 아빠 별, 저 별은 엄마 별, 저 별은 내 별… 대가족이
모두 하나씩 나누어 가져도 모자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 많던 별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시골집에 내려가도 그 많던 별들은 온데간데없고 칠흑같은 어둠만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죠.
별은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텐데 무분별한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인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 반짝이던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연과 함께 놀던, 그 빛나던 순간

흙더미 위를 구르고 눈뭉치를
한입 베어 물면서도 함박웃음 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해진 자연 속 즐거움.
그 빛났던 추억에 관한 네 직원의 이야기.

신사업기획팀
허봉진 과장

하루의 시작은 커다란 약수통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자주 오르곤 했었습니다.
등산을 갈 때 아버지는 배낭에 크고 작은 물통을 담아 메고 가셨고, 약수터에서 나오는 자연수를
들통에 가득 담아 집에 들고 와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약수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음용수였죠. 아침마다 줄줄이 들통을 들고 약수터를 찾던
동네분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금 약수터를 가보면 거의 음용 부적합이라는 푯말이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불과 몇 십년 만에 약수터의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할만큼 환경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외마케팅팀
이정훈 과장

도룡뇽, 개구리와 함께 놀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일원동에서 자랐는데, 그곳이 개발되기 전에 대모산 자락으로 친구들과 놀러가곤 했어요.
도룡뇽도 잡고 개구리도 잡으면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해질녘까지 신나게 놀곤 했죠.
하지만 이젠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경험하려면 돈을 들여서 자연체험시설로 가야 한다는 게
참 슬픈 현실 같아요. 어린 마음에 산자락 계곡에서 가재 한 마리를 잡아 조그마한 두 손에
담아 집까지 걸어와서 자랑하면, 가재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라며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라고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초록빛 '숨' 꿈꾸는 지구를 위하여

모두가 그리워하고 함께 돌아가고 싶은,
숨쉬는 단 하나의 별, 초록빛 지구.
대우건설인 100명에게 물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에 대한 생각과
나만의 그런 라이프에 대하여.

Check Your Green Life

Q
현재 우리가
환경을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배출되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28%

- 친환경 물품 구입하고 소비하기 27%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25%
-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나누기 19%
- 매연배출시설의 철저한 규제 1%

Q
과거에 비해 환경이 오염된 것을 실감한 순간은?

매일 미세먼지 지수를 체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37%

- 지구온난화로 인해 겪고 있는 심각해진 기후변화를 느꼈을 때 36%
-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했을 때 16%
- 코로나 이후 심각하게 늘어난 생활 쓰레기로 오염된 환경을 봤을 때 10%
- 쓰레기매립장 포화 및 불법쓰레기 투기 현장을 봤을 때 1%

Q
내가 생각하는
나의 친환경 레벨은
어느 정도?

1단계: 환경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다.

60%

- 2단계: 친환경 물품 위주로 구입하는 '가치소비'에 참여하고 있다. 30%
- 3단계: 일회용물품 사용을 거부하는 '프리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9%
- 친환경적이지 못함. 1%

Q
'필(必)환경'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가장 관심가는 키워드는?

일상 속 쓰레기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51%

-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공존을 실천하는 'ESG경영' 32%
-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소비' 14%
-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비건뷰티' 2%
- 쓰레기재처리시설 1%

Q
'필(必)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이후로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 배달 음식을 줄이고 플라스틱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함
- 비닐봉지 사용을 멀리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가방에 넣어 다니기
- 대중교통 이용빈도 늘리기 그리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
-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쓰레기 분리배출에 신경을 씀
- 친환경 제품 및 동물 복지 제품 구매하기
- 상생과 공존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explore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호흡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결국 자연을 아끼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연과의 공존 이야기.

*인류세
네덜란드의 화학자로 199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크뤼천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로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환경체계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를 뜻한다. 시대 순으로는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지질시대 최후의 시대이자 현세인 충적세에 이은 것이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묻다, '인류세'

국어사전은 인류세를 '인간이 보금자리를 뒤바꾼 지질시대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질시대를 연대로 구분할 때 기(紀)를 더 세분한 단위인 세(世)를 현대에 적용한 것으로, 인류세는 환경 훼손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현재 인류 이후의 시대를 가리킨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들 수 있다. 20세기 중반 핵실험으로 곳곳에 퍼진 방사성 물질, 플라스틱과 콘크리트 같은 '테크노 화석', 공장식 축산으로 지구를 뒤덮게 된 닭뼈 등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사막화, 대규모 멸종도 인간이 만든 세상을 그 이전과 명확하게 구별하게 해 준다.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지구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써 인류가 이제까지 진화해 온 안정적이고 길들여진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대멸종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인류에게는 새로운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화 중인 인류세. 그 가운데서 우리의 도덕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다.

도심 속에서 누리는 초록빛 '숨'

콘크리트 안에 자연을 닮은 정원을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는 전시 〈Open Museum Garden : 우리들의 정원〉. 이 전시는 디자이너, 예술가 19팀이 모여 콘크리트 박스로 이루어진 미술관 앞마당을 야외 정원으로 변화시킨 프로젝트로, 생명력있는 몸짓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세계 속에서 자연이 주는 편안한 쉼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스마트팜 카페인 '식물성 도산'은 '지구와 화성 사이의 별'이라는 콘셉트로, 마치 식물 행성에 온 듯한 이색적인 플랜테리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카페 한쪽 벽면에 마련된 스마트팜은 LED조명이 태양을 대신하고 생육환경을 자체 운영체제로 조절하다 보니 날씨와 관계없이 수경재배로 작물을 기를 수 있다.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들로 다양한 식물성 메뉴를 맛볼 수 있고 직접 구매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효행로
707번길 30 소다미술관
화–일 10:00~17:00 / 월요일, 명절연휴 휴관
사전예약제 운영중 (네이버 예약)

instagram
@sikmulsung_dosan

Space

생활 속에서 누리는 '네이처 아이템'

길바닥에 함부로 버려진 병뚜껑도 다시 볼 일이다.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다회용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버려진 병뚜껑을 분류, 세척, 분쇄해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치약짜개를 제작했다.

사람들이 가장 즐겨 신는 운동화도 친환경 트렌드가 대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당시 영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던 페트병을 활용한 운동화를 신어 눈길을 끌었다.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인 아디다스에서는 버섯에서 나온 비건 레더로 만든 신발을 출시했다. 아디다스는 버섯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셀리움(mycelium)을 사용해 만든 마일로(Mylo) 소재로 스탠스미스를 제작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소재는 가죽과 같은 룩과 느낌을 지녀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Item

정대우가 간다! 정대우와 함께하는 생활 속 에코라이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우건설 대표 캐릭터 정대우도 동참을 시작했다. 정대우는 유튜브 채널 '정대우가 간다'를 통해 차량 대신 자전거 타기, 플로깅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제로웨이스터 도전기, 버려지는 자전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이템 만들기까지 구독자들이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친환경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며 에코 라이프에 동참할 예정이다.

Contents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 '정대우가 간다'로 연결됩니다.

토목개발팀이 만들어 나가는 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0년 12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발표하며
모든 경제 영역의 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토목개발팀 직원들을 만났다.

invisible powerful energy

토목개발팀 오일훈 과장

토목개발팀 이태호 과장

화석연료가 중심인 현재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추진되고 있다.

회사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흐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조력에너지를 이용한 시화호조력발전PJ와 태양광을 이용한 제주감귤태양광PJ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얼마 전 영월 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하여 현장 개설을 마친 상태다.

이번에 수주한 영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강원도 영월에 4.2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풍력발전기 24기, 80MW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산림 훼손 면적 및 생태계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풍력발전기 11기, 46MW 규모로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 이상의 대체산림 식생복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자연식생을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직접 풍력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토목개발팀 김기명 차장

토목개발팀 백종범 과장

생태계 환경영향 최소화라니, 진행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허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었다. 사업부지가 속한 지역이 백두대간과 인접한 까닭에 다른 지역보다 식생이 우수하여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등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약 4년간 수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에 사업을 통해서 얻은 점이 있다면.

발주처와의 기나긴 협의, 환경 단체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오랜 기간 동안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킨 것 같다. 또한 새로운 도전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의미 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여 미래에너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경험 또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수년간에 걸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출발선을 넘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번 영월 에코윈드 풍력발전사업의 수주를 통해 회사는 풍력발전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업을 발판삼아 회사는 향후 확대될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이렇다 할 선두주자가 없는데 우리가 해상풍력의 리더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담당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특별한 경험치나 능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열린 마인드와 디벨로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산을 깎아 토지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등 눈에 보이는 실물을 개발했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눈과 피부로 쉽게 느껴지지 않은 빛과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사업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경제성을 판단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자연을 담보로 투자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회사는 과거 단순 시공 위주의 건설에서 탈피해 사업 개발, 시공,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주태양광발전 PJ, 영월에코윈드풍력발전 PJ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사업성이 우수한 신규 PJ를 선별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새로운 시장을 찾아 조력, 태양광, 풍력에 멈추지 않고 그와 연계되는 사업 또는 더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도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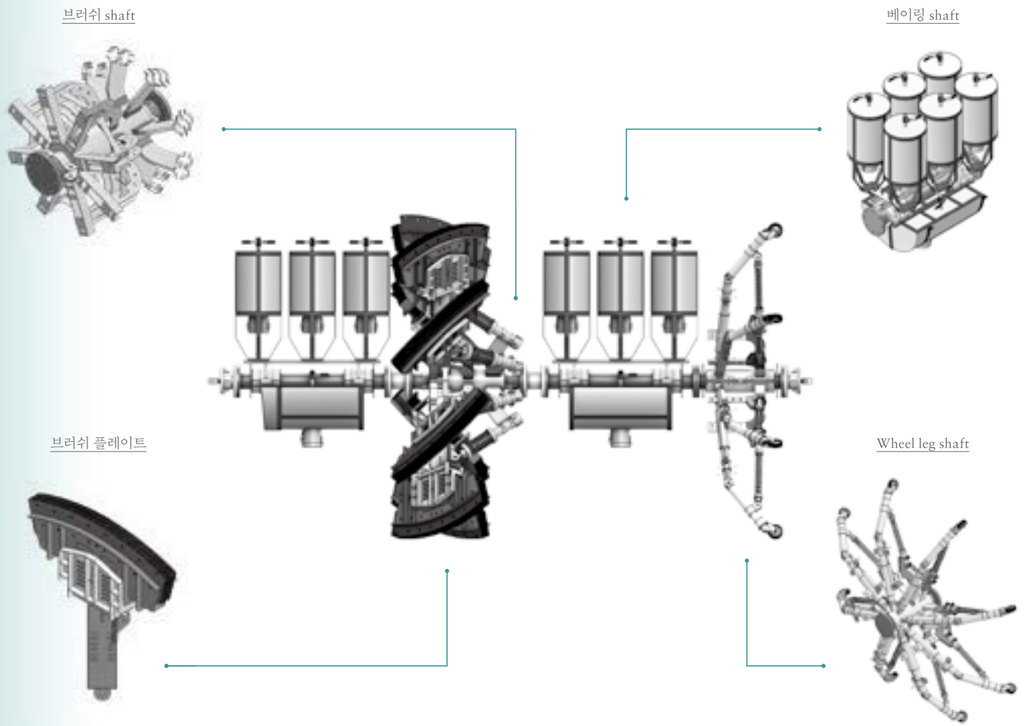
technology

해양플랜트 취수배관 세정장치
Winch-Jig Cleaning Machine

대우의 기술력으로 만든 특허받은 브러쉬, 윈치지그 세정장치

해양플랜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윈치지그가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됐다. 알제리 RDPP 복합화력 발전소 현장에서 해양플랜트에 맞는 세정장치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게 된 것. 이로써 회사는 유일무이한 심층취수배관 유지보수 시스템을 장착하여 해양 플랜트 수주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다각화 확보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다.

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HDPE 취수배관 맞춤형 세정장치의 독자적 개발

해양플랜트에서 양질의 바닷물을 육상플랜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바닷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배관 내벽에 달라붙어 성장한 조개류나 해조류는 가장 골치 아픈 관내 오염물질로 손꼽히는데, 중동지역 해양플랜트에서 이러한 오염물질에 의한 취수시설의 수위 저하로 내륙 플랜트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 알제리 RDPP 복합화력 발전소에서도 취수 배관 내부에 증식된 해양 생물의 세정을 위해 PIG 세정장치를 사용해 보았으나 바닷속 깊이 위치한 비강관 재질의 대구경관 세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현지 PIG 세정 독점업체에 작업을 의뢰했으나 과다한 금액과 해상 작업의 고위험을 이유로 작업 불가 답변을 받았다. 결국 RDPP 현장에서는 현장에 맞는 세정장치를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대구경 배관 전면을 닦아주는 Brush, 이동과 중심을 잡아주는 Jig, Jig를 당기고 Brush를 회전시키는 육상 Winch와 보조 부품을 수작업으로 그려나갔다. 현장 Shop에서는 장치 개발자가 현지인들이 그린 수기 도면을 바탕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윈치지그(Winch-Jig) 세정장치를 완성했다. 그리고 다이버가 바다 속 Suction Head에서 직경 2,400mm, 길이 1km의 HDPE 취수배관 4개 라인을 조립해, 성공적으로 세정하고 취수시설 수위를 회복시켜 발전소의 정상운전을 가능케 했다. 윈치지그 조작 숙련기술과 훈련된 다이버의 앙상블은 해상작업 안전 담보, 시공 품질 향상 그리고 발주처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윈치지그 특허, 시장 진입을 위한 상품화

기술연구원이 요청받은 현장의 요구사항은 세정장치를 개선 및 개량하여 세정과 조작 기능을 향상시키고 현장 수작업 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부품과 장치의 규격과 부품 목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연구개발에 착수한 기술연구원에서는 2D, 3D 모델링 및 구조해석 과정에서 부품 규격, 결합 위치, 부품 및 응력 부분에서의 오류, 손실을 수정 및 보강하고 부품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국내 공장 제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윈치지그가 생명을 얻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56종의 2,582개 부품이 필요했고 기성품의 유무를 확인해 공장 제작이 용이하도록 힘을 더했다. 세정장치 운영 개선방안과 장치 개량 방안을 제안하고 이중 첨단화, 경량화, 실용화 요소를 신규성, 진보성 및 사업성의 특허 기술에 녹여 특허 등록(10-2249952호)을 하고 중동시장 건설장비 진출을 위해 PCT출원(10-2020-0094399)을 했다. 코로나19 시기임에도 기술연구원은 내구성, 조립성 및 경량화를 고려한 신규 브러쉬를 제작하여 검수 후 항공 운송, 알제리 RDPP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 세정 작업 공기 32% 절감, 작업 인력 25% 절감, 작업 이동 거리 20% 절감 및 이로 인한 HSE 위험도 노출 28% 절감, 기존 피그 세정 장치에 비해 세정 비용을 7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윈치지그는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해양 플랜트 입찰시 반영되면 유일무이한 심층취수배관 유지보수 시스템을 장착한 해양 플랜트가 될 것이다. 또한, 윈치지그는 신사업다각화를 담보할 수 있다.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 담수 플랜트 등과 같이 심층 취수배관에 의해 바닷물을 공급받는 플랜트에 유지보수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EPC사 최초로 입찰, 공사, 시운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원가 절감, 품질 및 HSE 향상 및 공기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건설 장비를 개발하고 검증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summer

홀로 오롯이, 함께 즐거이 '언택트' 휴가를 즐기는 법

바야흐로 여름이다. 생각만해도 즐거운 여름휴가가 기다리는 계절.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보다
여유롭고 안전한 '언택트 휴가'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하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핫 스팟 언택트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tip.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휴가 보내기!

1.
캠핑 시 야영장에서 흘러 나오는
불빛과 소음은 야생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므로 불필요한
조명을 자제하고, 밝기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무에 해먹을 설치 할 때는
익숙지 않지만 나무 보호대
사용 도전!

2.
음식은 먹을 만큼만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보자. 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수거장에 배출해야 한다.
혹시 지정된 수거장이 없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챙겨가는
센스!

3.
야외에서 휴가를 보낸다면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한
부탄 가스는 구멍을 뚫어
분리 배출해야 하고, 모닥불
혹은 모기향을 사용하거나 취사
등의 이유로 화기를
사용할 경우 불을 사용한 후에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필수!

진한 편백향이 깊게 머무는, 크로베

제주에 있는 크로베는 일본 기후현에서 30년 이상 자란 편백나무를
가마에서 20일 동안 쪄내 함수율(목재에 함유된 수분 비율)을
최대치로 낮춘 최고급 편백으로 만든 특별한 공간이다. 제주의
원시림 중 하나인 곶자왈 한복판에 있는 이곳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진한 편백향이 온 몸을 파고든다. 현무암과 토종 식물로
꾸민 제주식 정원과 넓게 펼쳐진 귤 밭, 혼자 오롯이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발코니의 편백 욕조도 크로베의 매력이다. 독립된
정원과 마당을 품은 '크로베 산방'과 '크로베 한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침실과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 복층 구조다.

프라이빗하고 낭만적인 나만의 호캉스

바쁜 일상 속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여름밤의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도심 속 호캉스도 훌륭한 휴가가 될 수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해외로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오아시스 수영장의 개별 카바나에서 열대야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아시스 핫 서머 야간
카바나'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른 저녁부터 야간까지 여유롭게
프라이빗 풀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마련된 카바나에는
샴페인과 함께 과일 플래터, 소프트 드링크, 간식 등이 준비된다.
(이용기간: 6월 26일~8월 29일, 이용시간: 오후 6시 30분~10시)

임금의 나들이길을 따라, 여연스테이

임금이 나들이하던 곳을 뜻하는 '어연'을 이름 삼은 이곳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북 완주의 오성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최대 6명까지 수용 가능한 2층짜리
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타인의
간섭없이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나무 가구와 한옥마을의
전경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사방을 둘러싼 산의 경치 또한 멋스럽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2층의 야외 욕조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오붓한 가족여행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한 곳이다.

장엄한 촛대바위 뷰, 추암오토캠핑장

추암오토캠핑장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TV 애국가 영상
첫 소절 배경화면에 나오는 촛대바위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다.
촛대바위 주변에 솟아오른 약 10여 척의 기암괴석들이
동해와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하는 곳. 캠핑장 앞 해수욕장을
따라 걷다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밤에는
무드 있는 조명으로 한껏 운치를 더한다. 조명이 어우러진
촛대바위와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차 안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운치있는 여름휴가의 기억을 선사할 것이다.
사진: 추암오토캠핑장 홈페이지(https://www.chuamautocamping.or.kr)

our scene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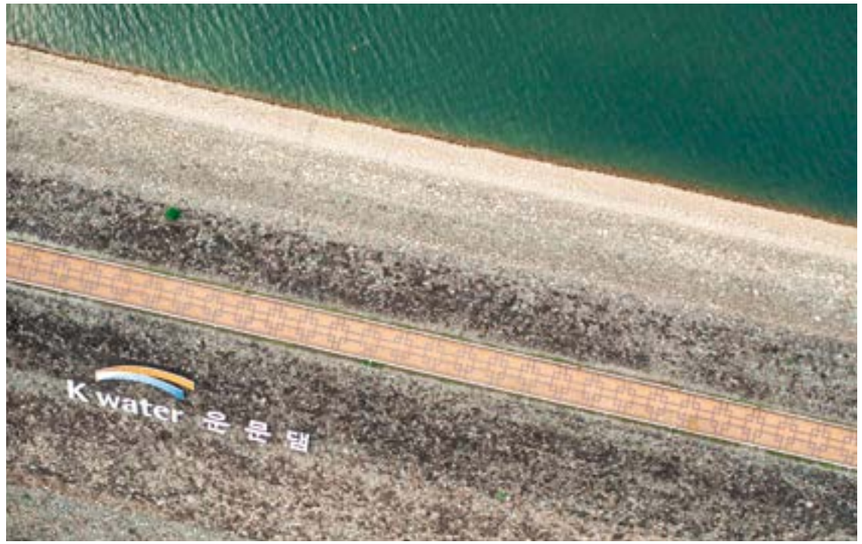
Strengthening Safety of UNMUN Dam Site

도전과 노력으로 댐 안전성강화의 머릿돌을 놓다

경북 경산에서 청도로 방향을 바꿔 호젓한 지방도를
40여분 달리니 눈앞에 운문댐이 넓게 펼쳐진다.
그 시선 너머로 풀냄새 짙게 풍기는 초록의 산봉우리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 투명하리만치 맑은 하늘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다. 자연과 하나 되어 지역의 물길을
보존하고 있는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의 풍경이다.

공사규모	운문댐 취수탑 1개소 신설 및 기존 취수탑 2개소 내진 보강
	총 연장 757m의 비상방류터널 신설 및 방류밸브실 전립
공사기간	약 52개월 2018.12.17~2023.04.30
공사 위치	경상북도 청도시 운문면 방지리 운문댐 일대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



최근 들어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운문댐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
이에 대한 해답으로 회사는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을
개설했다.

운문댐의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현장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7개 가운데 16개의 댐이 운영을 시작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물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수전용댐은 64%에 달하는 9개가 30년 이상 경과되어 댐 시설물 노후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경북 청도에 위치한 운문댐 역시 용수전용댐 중 하나로, 1996년 준공 이래 30년 가까이 제 몫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운문댐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 이에 대한 해답으로 회사는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을 개설했다.

"저희 현장은 운문댐에 신설 취수탑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붕괴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문호의 물을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터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2개의 취수탑에 내진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4년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인근 지역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현민복 소장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운문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차질이 없어야 하고 둘째, 앞으로 만들어질 시설물을 '제대로' 만들어 취수 증대와 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했다.

이번 현장에서는 차수를 통한 수중 작업이라는 현장의 특수 상황에 맞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운 도전의 첫발을 내딛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하게

운문호의 총 저수량은 1억 3,500만 톤으로 하루 23만 톤 이상의 물이 대구, 경산, 청도와 영천으로 공급된다.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전한 수질의 물 공급을 지속할 것을 과제로 내주었다.

공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준차장은 "용수 공급을 위해서 물을 막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2개의 취수탑에는 가물막이가 필요 없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보강공법을 적용"하고, "신설 취수탑에는 벽강관 가물막이에 대해 7단계의 차수(遮水)계획을 통해 최대 수심 40m의 댐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난이도가 높고 정교함을 요하는 공정들을 보다 안전하고 우수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한 공법들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이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차수를 통한 수중 작업이라는 현장의 특수 상황에 맞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운 도전의 첫발을 내딛었다.

먼저, 현재 대구 및 인근지역으로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운문댐 제1, 2취수탑의 경우 물막이 시공이 필요 없는 FRP보강공법을 적용했다. FRP공법은 유리 섬유 재질로 된 거푸집 공법으로 거푸집의 강도가 우수하여 형틀을 떼어내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10m 이상의 심도에는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심도 30m의 수중에서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토사퇴적과 부유물이 취수탑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취수탑 및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과제에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설 취수탑 건설에 있어 원형 벽강관 가물막이 공법을 통해 안정성과 시공성을 입증했다. 이 또한 역순환 굴착공법인 RCD 공법을 일반적 시공 방식에 반달 모양의 강관을 특수 제작하여 굴착 시 공벽붕괴로 인한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 현장 직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RCD, 항타, 양수, 터파기, 기초공사, 벽체 공사, 벽강관 해체 등 7단계의 차수 계획을 세워 수심 40m의 댐 내부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다. 더불어 부유물과 토사퇴적으로부터 안전한 깊은 수심에 신설취수탑 위치를 선정하여 수중굴착을 최소화하고 환경훼손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설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을 통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대우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며 '댐 안전성
강화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현민복 소장

댐의 안전성과 용수공급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로 운문호 수위가 가득 차게 되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운문댐의 붕괴다. 운문댐의 완전 붕괴 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운문댐안전성강화현장은 10일 이내에 저류수가 완전 방류될 수 있는 비상방류 터널의 굴착을 완료한 상태다.

"최초 설계 당시에는 내부직경 3.4m의 비상방류관을 댐 본체와 38m의 이격거리를 두고 시공하는 거였죠.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터널 발파 시에 예상되는 진동의 위험으로 댐과의 거리가 188m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터널의 선형도 증가했죠." 공사 총괄을 맡고 있는 김성원 부장의 설명이다.

이격거리가 늘어났어도 진동의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는 노릇. 공사팀은 진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저진동 TBM 공법(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착기를 사용하는 공법)을 터널 중앙부에 적용하여 댐의 안전과 누수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은 비상방류터널과 연결되는 방류 시설도 콘 밸브, 부댐, 정수지, 3단계의 감식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비상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의 피해까지 완벽히 차단하는 꼼꼼함까지 발휘하며 현장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다.

2023년 현장이 완공되고 나면, 용수공급의 안정성, 표층과 심층의 선택 취수를 통한 냉해 피해 방지, 맑은 물 공급 등 운문댐 용수공급 능력의 향상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수중공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새로운 공정에의 도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보다 안전한 내일을 열어가는 초석으로 놓여지길 기대한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관리팀

공무팀

공사팀

품질·안전팀

2021 대우건설 신입사원
뜨거운 열정, 푸릇한 패기로 뭉쳤다!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새내기가 나타났다!
각자의 고향도, 분야도 모두 다르지만 대우건설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인 그들.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반짝반짝
눈부신 대우건설 21사번들.
그 빛나는 얼굴들을 소개한다.

박상우/건축
설계와 구조, 시공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어 통합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박영웅/안전
N년 연속 무재해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박상찬/건축
대우건설에서 만날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꿈꿉니다.

박지연/안전
서로 믿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김태훈/안전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우인이 되겠습니다.

박도현/건축
단순한 시공 전문가를 넘어선 종합프로젝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남윤균/건축
대우건설을 대한민국 제1의 건설사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남궁슬기/건축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능력있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규호/건축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열정적인 대우인이 되겠습니다!

유동훈/안전
안전사고를 예방, 모두의 행복.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송철한/안전
열정, 긍정, 의지로 똘똘 뭉친 대우건설의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우정연/건축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대우인을 꿈꿉니다.

신지현/건축
자신의 커리어를 진정으로 즐길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 아닐까요?

신용우/건축
자기계발에 힘쓰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신주희/건축
가장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통하는 대우인이 되겠습니다.

배영우/건축
정체하지 않고 성장하는, 꾸준한 전문가로 커나가겠습니다.

이상훈/건축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듬직한 동료로 서있겠습니다.

유지영/건축
꾸준히 성장하여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문수/건축
경험은 최고의 자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설산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민혁/건축
긍정적이고 밝은 제 장점을 살려 최고의 소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유민환/건축
동료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짐이 되지 않는 자주적인 대우인이 목표입니다.

윤희승/건축
제 장점인 강한 책임감을 살려 직원분들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강찬/건축
동료들과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며 정을 쌓아나가는 제 모습이 상상됩니다.

이석진/건축
욕심 때문에 눈앞에 행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현호/건축
항상 배우고자,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준근/건축
현장에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나는야 대우건설의
긍정맨!

임성하/건축
건축사업부문 사내
전문 강사가 되어
후임 양성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이종성/건축
동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묵직하지만 유쾌한
사람이 제 꿈입니다.

이재희/안전
제 현장에서만큼은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게 하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재환/건축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방안을
잘 찾아내는
대우건설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임소연/안전
토목인으로서
저의 역량을
대우건설에서 마음껏
펼쳐보이겠습니다.

장수호/안전
믿음직하면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해원/건축
항상 밝게
인사함으로써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재호/재무
차분하고 조용한
제 장점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커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장하린/안전
책임감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로
커나가겠습니다.

전준영/건축
뭐든지 열정있고
센스있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 제
꿈입니다.

정성욱/중기관리
모든 건설기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꿈꿉니다.

정영대/건축
항상 든든하고
도움이 되는
선배이자 후배로
대우건설에
남겠습니다.

정호윤/건축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
대체불가한 인재가
제 목표입니다.

조성민/건축
회사에 최대한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최창욱/건축
끈기를 잃지않고
노력하여
대우건설에서
현장소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차연재/건축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건축에
대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최지훈/토목
외유내강의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친근한 동료로
회사생활을
하겠습니다.

최원태/안전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복을 지키는
안전관리자가 제
꿈입니다.

최윤영/안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안전분야의 정점을
찍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최윤서/경영지원
20년 후 대우
건설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현재의
선택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현지/건축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대우의
탑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지환/건축
다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늘
동료와 함께하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천재홍/재무
대우건설에서 잘
생활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성원/안전
안전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듯 매사에
10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준/안전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직무이니만큼
책임감 넘치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황정현/건축
회사와 함께
하루하루
발전해나가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규민/건축
믿고 업무를
맡기실 수 있는
믿음직한 인재로
커나가겠습니다.

허진욱/건축
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공사를
훌륭히 수행해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홍신의/토목
일관성과 법도를
지키며 조직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현욱/토목
제 장점인 강철
체력을 살려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잘해내
보이겠습니다.

한호랑/건축
어디서든 잘
융화되어 팀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진형/건축
최고의 관리자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대우건설인이
되겠습니다.

강형석/건축

남에게 피해끼치지 않고 평범하게, 그러나 부끄러움없이 살겠습니다.

강태화/건축

정답만을 찾지 않고 올바른 선택만을 하는 대우인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안전

착실히 배워서 나중에 배운만큼 보답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강지혜/건축

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따뜻한 건축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김민석/건축

일할 땐 열심히, 놀 땐 화끈하게, 매사에 열심히 하는 인재입니다.

김동준/건축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동필/건축

선배님들에게 열심히 배워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권혁준/안전

도움과 믿음을 주는 믿음직한 안전관리자로 커나가겠습니다.

김승한/토목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제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김정빈/건축

동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선한 대우인으로 남겠습니다.

김주원/건축

한 팀이 된 동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지은/건축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에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찬유/건축

누구나 아는 랜드마크 시공을 통해 대우와 저의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유승/건축

대우건설과 함께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지욱/토목

많은 것을 배워서 디지털 건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승련/건축

선후배들에게 인정받으며 누구보다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1 대우건설 신입사원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김동현, 박종혁 사원은 사정상 촬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현/건축

현장에서 늠름하고 유능하게 진두지휘하는 미래의 제 모습이 기대됩니다.

박종혁/건축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 주택시공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Guide for better life

how to — 40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뷰티케어
special day — 42
이로움은 더하고 해로움은 덜어낸 '착한' 비누
from the city — 48
거대한 성장잠재력 품은 친환경도시, 베트남

〈대우건설인〉 Guide for better life 섹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뷰티케어

생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치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뷰티산업에도 웰니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
나에게 꼭 맞는 뷰티케어 스타일은 무엇일까.

check list

A

- ☐ 컨디션이 좋은데도 주변에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 자도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 ☐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다.
- ☐ 최근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이 심각해졌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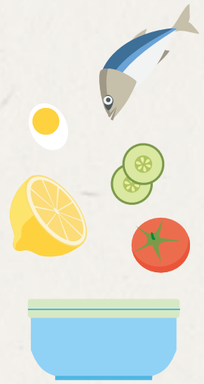
- ☐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다.
- ☐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본다.
- ☐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이 좋다.
- ☐ 손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것에 관심이 많다.

C

- ☐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을 꼼꼼히 본다.
- ☐ 화장품 제조사와 제조공정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 ☐ 친환경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 ☐ 평소 생활 속에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

A 바르는 대신, 먹는 화장품이 대세!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너뷰티'. 몸 속의 건강부터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뜻의 이너뷰티는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먹는 화장품을 통틀어 일컫는다.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으로 골고루 챙겨먹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종류도 다양한데 피부 탄력을 채워주고 뼈나 모발 등을 구성하는 영양소인 콜라겐에서부터 피부미백,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B, C, D, E, 그리고 신경세포막과 인체 각 장기들의 세포를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오메가3,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조직 사이를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가르시니아, 면역력 증진으로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등이 있다. 좋다고 무작정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 화장품도 DIY, 천연화장품 만들기!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당신은 바로 뷰티 DIY족. 코로나로 인해 매일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요즘, 본인에게 꼭 맞는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화장품 DIY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이 되면서 따가운 햇볕에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며 각종 피부 트러블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독한 화학 성분의 화장품 보다는 본인 피부에 맞고 성분도 순한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는 레시피에 맞게 정해진 양을 배합하는 게 중요한데, 색소는 빼고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성분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용법과 용량을 꼼꼼히 지켜서 만드는 것이 좋고,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금방 상할 수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C 생명을 생각하는 '비건 화장품'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당신은 가치 소비에 기반한 비건 뷰티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비건 화장품과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큰 차이가 있는데, 비건 화장품이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조차 깐깐한 기준으로 고르고 있는 것. 화장품 속 동물 성분으로는 양털에서 추출한 기름인 라놀린, 동물성 지방에서 추출하는 글리세린·올레산, 상어 간유에서 추출해 립밤·보습제 등에 사용하는 스쿠알렌 등 종류도 다양한데, 비건 화장품의 경우, 비즈 왁스 대신 콩 왁스 등을 사용하고 붉은 염료 성분인 연지벌레도 사용하지 않는다. 즉 비동물성 유래 원료 사용이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원료 및 완제품 사용 등을 준수한다.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건강하면서도 착한 제품 소비가 늘면서 화장품 회사들도 천연·식물성·유기농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만 소개하는 제품군을 따로 관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조 과정에서부터 생명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비건 뷰티'는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로움은 더하고 해로움은 덜어낸 ‘착한’ 비누

GOOD SOAP

내 몸에 직접 닿는 세안제만큼은 피부에 안전하고
순한 성분으로 쓰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클린뷰티’는 더 나아가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그 의미를 확장했다.
토건설계팀 김정식 차장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천연 성분의
착한 비누 만들기에 도전했다.

피부와 환경까지 생각한 '클린뷰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환경보호를 위해 생각하고 소비하는 일명 그린슈머가 늘어나고 있다. 그린슈머란 자연을 상징하는 말인 '그린(green)'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제품 구매를 할 때 유기농을 표방한 먹을거리와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 천연 소재 또는 천연 자재로 만든 화장품·의류·가구·생활용품 등을 비롯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나 환경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 대기전력 절감 제품 등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제품을 선택한다.

화장품 역시 '피부에 안전하고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라는 개념에서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화장품'으로 의미가 확장된, 일명 '클린뷰티'가 트렌드이다.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와 천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정보와 학습으로 무장한 프로슈머를 탄생시켰고 이들의 '좋은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계면활성제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천연비누 시장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비누 만들기

한때는 비누가 폼클렌저에게 밀려 구닥다리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아이템만을 골라 소비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바야흐로 비누의 전성시대가 오게 된 것.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성분으로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천연 수제비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렇게 좋은 비누가 생활 쓰레기마저 줄여주는 착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사용할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려고 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오늘 착한 성분의 천연수제비누만들기에 도전한 이들은 토건설계팀 김정식 차장과 그의 가족. 아내 김미나 씨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지민 군은 오늘 직접 수제비누를 만들어보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고 입을 모은다.

"예전에는 별 생각없이 비누나 샴푸, 바디제품 등을 고를 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썼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두피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천연제품을 찾아 쓰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두피 상태가 달라지더군요. 그 후로 몸에 닿는 제품들은 가능한 천연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얼마 전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먹는 음식과 바디제품을 신경쓰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아이에게도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제품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비누공방 '코코앤스포나'에서 이들이 오늘 만들어볼 비누는 바로 CP비누. CP비누란 2주 이상의 건조 및 숙성 기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비누로 높은 세정력을 갖춘 동시에 빠르게 분해되므로 피부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물 오염 또한 줄인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김정식 차장 가족의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할
직원과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pecial day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랜 기다림이 만들어낸 것인만큼 사람과 지구에게 선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비누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터전을 위협하고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불러오는 팜오일 농장의 증가를 우려하여
팜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팜프리비누'로, 물을 워낙 좋아해 주변
작물들을 황폐화시키는 피해를 안겨주는 아보카도도 과감히 뺀
'지속가능함'까지 생각한 비누로 만들어볼 계획이다. 흔히 들어가는
성분인 팜도, 아보카도도 넣지 않는 대신 올리브오일과 시어버터,
코코넛, 동백오일, 피마자오일 등을 넣어 세정력은 더 높이고,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비누를 만드는 체험이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색깔과 패턴,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아들 지민 군은 평소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바다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비누를 만들어볼 셈이다. 엄마는
예쁜 핑크와 화이트로, 아빠는 숲을 닮은 그린과 화이트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비누를 만들자며 귀여운 미소를 짓는다.

비누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다

비누 만들기는 정확한 계량이 생명이다. 조금만 어긋나도 알칼리가
강한 비누로 잘못 나올 수 있어 계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들어가는 재료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는 레시피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넣어 섞는 것이 좋다. 아들 지민 군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천천히 계량컵에 재료들을
섞는다. 작은 고사리손으로 직접 블렌더를 잡고 재료들을 섞어보기도
하고 직접 고른 색깔의 염료를 조심스레 넣어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한다. 섞는 동안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걸 보면서 '우와!'하고
환호성을 질러보기도 하고 다 만든 비누를 조심스레 온장고에
넣으면서 '잘 자라라'하고 씩 웃어보기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 살만한 지구를 만들어야 할 어른들의 무거운 어깨를
다시금 실감해본다.
"얼마 전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기념 여행 대신 오늘 비누
만들기로 훨씬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평소에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는데, 오늘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서로
마음의 여유도 찾고 너그러워진 것 같네요. 이제 비누만큼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써봐야겠다는 욕심도 납니다, 하하."
'착한 비누'를 만들어보면서 내 가족과, 가족이 살아가는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다는 이들의
초록빛 꿈이, 지구 어딘가에 건강한 풀씨로 내려앉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래본다.

Good Soap

일상 속에서 골라 쓰는 착한 비누 라인업 Line up

지성용 비누
소금을 넣어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세정력이 높은
것이 특징. 세안 후 뽀드득한
느낌을 좋아하는 지성피부에게
효과적인 비누이다.

배쓰밤
따뜻한 욕조물에 풀고 힐링할
수 있는 배쓰밤.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르게
SLSA라는 고가의 계면활성제를
넣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천연에센셜오일을 넣어서
다양한 효능을 지닌 허브테라피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탁용 비누
시중에 판매되는 세탁세제에는 보통
좋지 않은 성분이 많기 마련.
하지만 천연성분으로 만든 세탁용
비누는 과탄산소다를 넣어 살균표백
효과는 높이면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든다.

샴푸바&린스바
샴푸나 린스는 액상의 형태로
만들면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샴푸바와 린스바는
고체화되어 있어서 방부제가
안들어간 건강한 비누이다.
약산성이라 두피에 자극도 덜하면서
세정력도 높인 것이 특징.

세안용 비누
보습력이 좋아서 건조하거나
당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다양한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일에는 보습력을
줄 수 있는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세정력과 보습력이 좋다.

유아용 비누
세안용 비누와 성분이 비슷한데
아이에게 좋은 순한 오일을
많이 넣었다는 것이 특징.
달맞이꽃종자유, 호호바오일
등을 넣어 피부에 자극을 덜하고
보습력을 높여 어린 아이들이
쓰기에 좋은 비누이다.

설거지바
시중에 판매되는 주방세제는
잔류세제가 많이 남는다.
하지만 설거지바는 CP로 만들기
때문에 잔류세제가 남지않고
생분해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세제이다.
베이킹소다를 넣어 세정력을
높인 것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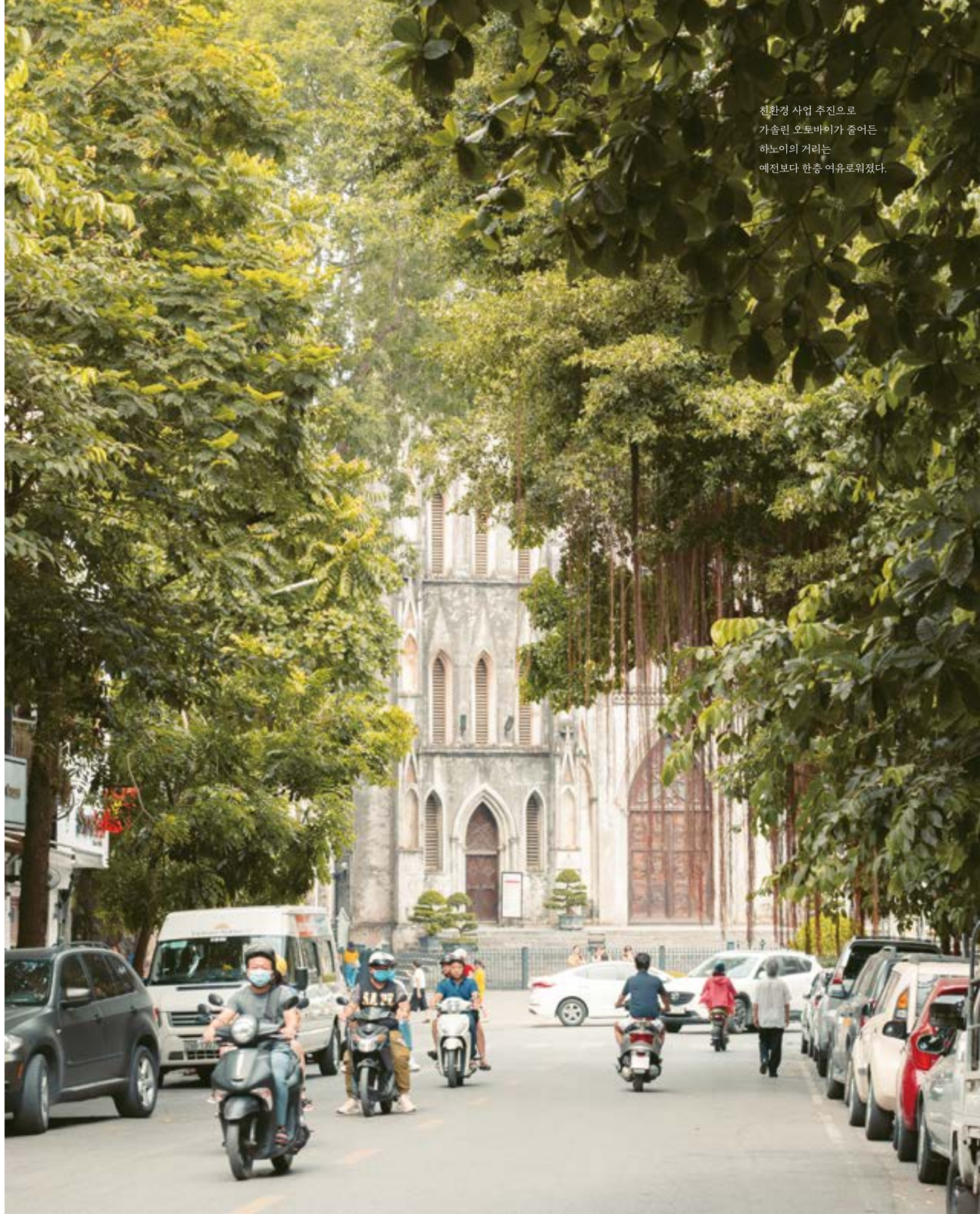
올인원 비누
팜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팜프리
비누로, 코코넛으로만 만든
비누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탁용, 설거지용 등 골고루 쓸
수 있는 만능 비누.

from the city

Growing Eco-friendly city, Vietnam

거대한 성장잠재력 품은 친환경도시, 베트남

예전에 베트남에서는 사람 수만큼 많은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오토바이 사용감소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최근에는 오토바이 수가 많이 줄었고 그만큼 대기의 질도 양호해졌다.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품고 다각도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인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환경·교통 부문에서 낙제점 받은 주요 도시들

올해 1월 글로벌 도시 비교 사이트 '넘베오'가 공개한 각국 주요 도시 삶의 질 순위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다는 하노이는 전체 251개 도시 중 219위, 호치민은 242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환경·교통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은 탓이다. 넘베오는 "두 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심각한 대기오염, 교통 불만족과 시스템 비효율성 측면에서 현저히 점수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해외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인 '인터네이션스'가 173개국 1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체류 국가 만족도 조사에서 베트남 대표 호치민의 순위는 66개 도시 가운데 55위에 그쳤다.

이렇게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시달리자 베트남의 지방 정부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 중이긴 하다. 지난해 호치민시는 하루 9,300만 톤에 달하는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하노이시 역시 시내 진입 차량에 '환경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순차적으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새 차(베트남 제조 또는 수입)는 Euro 4 배출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는 Euro 5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 사업 =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

베트남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오래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조립/제조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 기술 자동차(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바이오 연료, 천연가스 사용)와 관련 부품에 수출입 관세율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차량 모델에 대해 등록 조건을 면제하고, 최소 생산 수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대기업 VinGroup(빈그룹)의 자동차 제조 자회사 VinFast(빈패스트)는 전기버스 제조 성공에 이어 친환경 교통 사업을 준비 중이다. VinFast는 수도 하노이, 호치민시, 유명 관광지 푸꾸옥 섬에서 친환경 교통 서비스 사업 계획을 세웠고, 이의 일환으로

2020년 현지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전기버스를 생산해 2020년 10월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2021년 말 베트남 시장에, 2022년 2분기 세계 시장에 자체 전기 SUV 차량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친환경(Sustainability) 사업에 대한 베트남 기업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베트남통상산업부(VCCI)와 산하 지속개발사업부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베트남 기업들의 인식변화에 대해 '회사발전의 걸림돌'에서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9%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인 8%보다 1% 상향 조정된 결과로 총 8,39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조건부로 국제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기존 목표치인 25%보다 상향 조정해 최대 27%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 건축물로 친환경 도시를 꿈꾸다

베트남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녹색건축인증도 시행 중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녹색건축위원회(The Vietnam Green Building Council, VGBC)는 지난 2007년 미국의 녹색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LOTUS 친환경건축인증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베트남에 친환경 건축 기준 정립, 환경 친화적 건축 방법 제공, 건축 산업에 효율적인 자원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기업과 건축가들은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기존 및 신규 건물에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적용하는 UN개발계획(UNDP)의 시범 프로젝트는 건물 당 총 투자비용의 약 0%~3%로 건물 당 25%~67%의 잠재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고 전망한다. 배터리와 전력 공급 인프라 투자는 물론 전기차, 양수발전, 풍력 등이 적절하게 배합된다면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역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다.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친환경 국가로 발전해나갈 베트남의 미래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녹색건축 인증을 시행 중이다.

DECV VIETNAM THT SITE(STEP-1A)

베트남DECV법인(THT1단계아파트현장)(~2020.10.20.)

'스타레이크시티'사업은 하노이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호수 지역 2백만m² 이상의 부지에 정부기관과 주거시설,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이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의 기획부터 금융조달, 개발,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이 주도한 진정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2012년 '스타레이크시티'사업에 착수하여 부지조성, 빌라 시공 등을 거쳐 2020년 THT1단계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번 1단계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까지의 아파트 3개동, 총 60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Ring Road No2와 No3, Hoang Quoc Viet 도로 등이 인접한 사통 팔달의 교통인프라를 자랑하며 저밀도 사업계획으로 전체 단지의 쾌적성을 확보하며 분양 당시부터 큰 인기를 모았으며, 스타레이크 사업부지 내 호수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 환경이 하나된 차원 높은 생활 문화 공간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상공감툰

글/그림 카툰

<여름휴가>

daewoo e&c

용인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수주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1층 ~ 지상 15층, 12개동 아파트 총 1,168세대 규모의 기존 아파트를 지하 2층 ~ 지상 16층 12개동, 총 1,343세대로 수평 증축할 계획이다.

평택동삭세교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6월 22일, 회사는 평택동삭세교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0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 ~ 지상 28층, 9개동 아파트 812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구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지난 6월 19일 개최된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02-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 ~ 지상 29층 8개동 아파트 729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부산 부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 수주

지난 6월 14일, 회사는 부산 부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8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6층 ~ 지상 29층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407길, 근린생활시설 1,317평을 건설할 계획이다.

7 + 8 news

성남복정1 B2BL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수주

지난 6월 4일 개최된 성남복정1 B2BL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의 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1 B2블록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1층 ~ 지상 24층 아파트 10개동, 61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부천원미동지식산업센터현장 준공

지난 6월 21일, 부천원미동지식산업센터현장이 부천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39-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3층 ~ 지상 20층 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건설했다.

CEO 안전점검 실시

지난 6월 23일,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 사장은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안전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도뭄바이해상교량PJ현장 백신접종센터 운영

지난 6월 8일부터 인도뭄바이해상교량PJ현장에서 현장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센터(CVC : COVID-19 Vaccin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백신접종센터 운영 및 기간은 6월 8일부터 15일까지로 현장 근로자 2,000여 명과 근로자 가족 등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5 + 6 독자의견

리큅
식기건조기

① 등

회계팀 조원배 사원

world report 나이지리아의 생활 칼럼이
인상 깊었습니다.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아직 해외현장
경험이 없는 제게 골프나 쇼핑 등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가 신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이 더 클텐데 모두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② 등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현장 김민석 사원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해를 가하며
무섭게 다가오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푸른 강변과 자동차 없는 다리 위를
걷다'를 읽으며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는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③ 등

김형진 대리

Plogging 칼럼이 참 좋았습니다.
말로만 들어 본 줍깅, 플로깅을 주변 회사
동료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의 건강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어 좋을 듯합니다.
굳이 거창한 산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플로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동부지역설비2팀 박재우 과장

유형별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친환경이
대두되면서 제로 웨이스트나,
제대로 된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배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오히려 잘못 배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유용했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독자 퀴즈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파나소닉 초음파 구강세정기 제트워셔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3등—3명 기프티콘 2만 원 상당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 02-2288-3297

당신의 삶, 그 고귀함이 계속되길
The Natural Nobility
PRUGIO